

이기는 삶

끝까지 삶의 끈을 놓지 말라

구 소련이 정치범들에게 행했던 실험이 있다. 추운 겨울 죄수들을 별판으로 끌고 간다. 그리고 땅을 파게 한다. 땅은 썩 썩 얼어붙어 있어 좀처럼 팔 수가 없다. 하루 종일 파도 얼마 파지 못한다. 그리고 해질녘이 되면 파냈던 흙을 다시 덮게 한다. 다음날 또 죄수들을 별판으로 끌고 간다. 그리고 또 땅을 파게 한다. 그리고 또 하루 종일 파낸 흙을 덮게 한다. 이렇게 계속 하다보면 죄수들은 1년을 넘기지 못하고 그의 대부분이 죽는다. 과로에 의한 것도 아니고,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매를 맞아도 아니고, 굶주려서도 아니다. 매일 똑같은 의미 없는 일을 반복하다 보니 삶의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것이다. 그냥 피 쓰러져 죽는다고 한다. 하나같이 멍하니 눈을 뜨고 동공이 풀린 상태로 죽는다고 한다. 이를 허무병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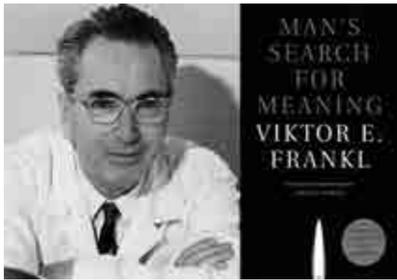
어디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가장 건강한 사람도, 가장 영양상태가 좋은 사람도, 가장 지능이 우수한 사람도 아니었다. 그들은 살아야 한다는 절실한 이유와 살아남아서 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목표가 강한 의욕과 원동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다!

6·25 한국 전쟁 당시 조희성님은 경찰관의 동생이라는 이유로 평양까지 끌려가서 평양 신양리형무소의 독방에 더운 여름에 6명을 집어넣으니, 한 명이 누우면 딱 차는 곳에서 발도 뻗지 못하고 한 달 반 동안을 쭈그러 앉아 있어야 했다. 옆 사람이 쥐가 나서 경련을 일으켜서 주물러 주면 주물러주는 사람도 같이 쥐가 나서 경련이 일어났다고 한다.

밤은 하루에 한 끼를 밀을 삶아서 모래를 섞어서 주었다고 한다. 모래를 골라 벨

어내면 "이 새끼들아, 총알이 아까우니 그냥 처먹고 맹장염에 걸려서 뉘져!"라고 호통을 치며 긴 막대기로 머리를 후려쳤다고 한다. 그러한 처절(慘絶)한 고통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죽어 나가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이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하니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처분대로 하소서.'하는 일념으로 버텼다고 한다.

아우슈비치 수용소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한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는 있지만, 어떠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삶에 대한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아 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삶이란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아니라,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온전한 것이 오면 온전치 못한 것은 폐한다’
 ‘When the perfect comes, the imperfect is abolished.’

성경에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고 하였고(요 16:8) 온전한 것이 오면 온전치 못한 것은 폐한다(고전 13:10)고 하였다.

▶ The Bible says that when the Trinity Holy Spirit comes, he will convict the world of sin, righteousness, and judgment (John 16:8) and when the perfect comes, the imperfect is abolished. (Corinthians 13:10)

온전한 자가 나오면 온전치 못한 자의 말과 기록은 폐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 When a perfect person comes out, the words and records of an imperfect person are destined to be destroyed.

오늘날 이긴자가 어두운 세계를 밝히는 진리의 말씀을 외치고 있다.

▶ Today, the Victor Christ is shouting the word of truth that illuminates the dark world.

어둠을 밝힌다고 하니 태양 빛이나 전깃불 같은 빛인 줄 아는데 성경은 영적 말씀이므로 마음의 빛을 말하는 것이다.

▶ When it comes to lighting up darkness, it is not the light of the sun or an electric light, because the Bible is a spiritual word it refers to the light of the heart.

빛은 마음이고 마음은 빛이므로 빛의 마음은 지혜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 Since light is the mind and the mind is light, the mind of light refers to the mind of wisdom.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천국의 소재는 어디인지, 또 지옥과 마귀는 무엇인지 환하게 알려주는 것이 빛인 것이다.

▶ It is the light that lets us know brightly what God is, where the heaven is, and what hell and the devil are.*

- From the words of the Victor Christ.*

by Al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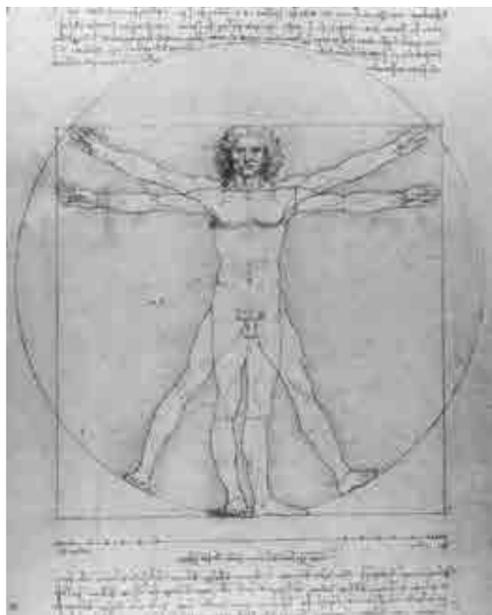
영적 상징과 꿈 <23>

부제: 네 생물과 레오나르도 다 빈치

BC 1세기 경 로마의 대 건축가 비트루비우스(Vitruvius)는 《건축10서》에서 '소 우주인 인체의 비율은 대우주인 세계의 비율과 유사하며 인체의 완벽한 비율은 정사각형과 원 안에 구현된다.'고 서술하였습니다.

인간과 세계를 '우주'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내며, 인간과 세계는 실은 신적 존재로서 하나이다라는 영적 통찰을 담고 있는 비트루비우스의 말은 1500여년을 건너뛰어 천재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중심을 뒤흔들게 됩니다.

다 빈치는 비트루비우스가 말한 내용을 후대에 '비트루비우스 인간' 혹은 '다 빈치의 인체 비례도'라 불리게 되는 한 점의 걸작을 통해 구현해냅니다. (우측 그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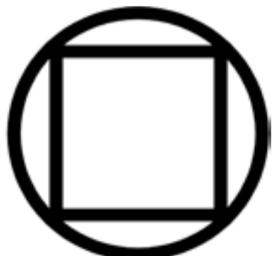
<인체비례도, 다 빈치>

이 '비트루비우스 인간'은 똑바로 서서 팔을 좌우로 펼치면 정사각형 안에 딱 들어맞고, 활개짓하듯 팔다리를 펼치고 누우면 팔다리 사지가 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인간의 몸이 정사각형과 원이란 영적 도형으로 환원되어지고 있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원을 우주나 신성으로, 정사각형을 땅, 지상의 것으로 여겼던 고대 철학자들의 세계관을 생각해보면 이 '비트루비우스 인간'은 하늘과 땅의 온전함을 그대로 부여받은 완전한 존재를 상징합니다.

이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것이 없으신지요. 그렇습니다. 이 그림과 '네 생물의 왕'의 상징은 많이 닮아있습니다. (아래 그림 참조)



<네 생물의 왕>

'네 생물의 왕'에 대한 지금까지의 글을 보신 분이라면 다 빈치의 인체 비례도와 네 생물의 왕, 두 그림 사이의 유비(類比, Analogy)를 쉽게 눈치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네 생물의 왕'이라는 창을 통해 비트루비우스 인간에 담긴 영적 비

밀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비트루비우스 인간과 네 생물

첫째로, 정사각형 안에 팔을 펼치고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정사각형은 땅의 완전수 4수를 의미하는 도형이자 요한계시록의 네 생물의 상징입니다. 네 생물이 아니라 그 자체로 마귀이자 하나님이기도 한 영적 병존체입니다.

다 빈치는 정사각형과 인체를 일치시킴으로써 인간이 땅의 완전수 4에 해당하는 존재, 네 생물이란 것을 한 눈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정사각형의 중심점에 인간의 생기가 위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사각형 안의 인간은 땅에 속한 자로서, 육적 존재이며 그대로 마귀 신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네 생물의 정의입니다. 해서 인체 중에 가장 육적이고 마귀적인 기관인 성기가 사각형의 정 중앙, 중심자리에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빠진 자 = 이긴자

둘째, 원과 정확히 일치하는 궤적이 팔다리를 펼치고 누운 인간의 형상이 보입니다. 원(圓)은 하늘,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원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사람은

그 자체로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이보다 명확히 보여주는 예를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원(圓) 안의 사람은 팔다리를 펼치고 대자로 '누워있는' 형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속된 말로 사람이 '나자빠진' 모습입니다. 왜 일까요?

'나자빠지다'에 담긴 영적 의미를 아십니까. 인간 나, 마귀 나가 자빠지는 것이 '나자빠지는 것'입니다. 마귀 나, 인간 나(내)가 쓰러진 것이 '나' 자빠진 것입니다. 파자(破字)로도 대(大)는 일(一) + 인(人)이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마귀 내가 죽어 나자빠져 하나님의 사람이 된 자란 뜻이 대자로 나자빠진다는 말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쓰는 말 곳곳에 마귀 죽이는 지뢰를 묻어놓았습니다.

해서 이 그림에서 사각형에 속한 육적 인간이 똑바로 서있는 것에 비해, 하나님을 상징하는 원 안의 인간은 누워있는 것입니다. 원 안의 그는 마귀 내가 쓰러져 하나님으로 거듭난 자, '나' 자빠진 자이니 까요.

게다가 이 원의 중심 자리에 무엇이 위치하는지 아십니까. 배꼽입니다. 위에서 사각형의 중심에 성기가 위치

한 것과 반대입니다. 배꼽은 맺줄, 생명줄의 흔적입니다. 배꼽은 그 자체로 생명인 신 하나님과의 연결점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원의 중심점에 생명줄, 배꼽이 위치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원 안의 사람은 하나님과 생명줄, 영적 맺줄로 하나로 이어진 영적 존재이니 까요.

이와 같이 정사각형과 원형 안에 인간을 구현한 다 빈치의 그림은 인간이 땅에 속한 존재, 네 생물이자 하늘에 속한 온전한 존재라는 것을 한 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긴자를 상징하는 '네 생물의 왕'의 도형이 이미 다 빈치 시대에 등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럴 리는 없습니다. 상징은 그 모체가 되는 영적 실체가 현실에서 토대를 갖추어 구현되지 않는 한 결코 등장하지 않습니다.

15세기 다 빈치의 시대에 '네 생물의 왕'의 도형이 온전히 등장할 수는 없는 이치입니다.

어긋난 땅(○)과 하늘(□)

셋째, 우리는 다 빈치의 그림에서 사각형과 원의 불일치에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그림에서 원과 사각형은 살짝 어긋나 있습니다. 여기에는 깊은 영적 사정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상징으로서의 사각형은 땅이자 인간이며 원은 하늘이자 하나님입니다. 그 두 중심이 어긋나 있다는 것은 하늘과 땅이 아직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의미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각과 원이 어긋나 있는 비트루비우스 인간, 이 그림은 천지합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당시 우주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균열은 오백여 년을 훌쩍 넘어 동방의 한 끝에서 깨우쳐지기 시작합니다.

탄허(呑虛)와 다 빈치

'지축정립(地軸正立). 후천에는 지축이 바로 선다.'

탄허(呑虛) 스님의 유명한 예언입니다. 지축(地軸)은 태양이 지나가는 길인 황도(黃道)면을 기준으로 23.4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황도(黃道)면에 대해 지축이 기울었다는 말은 하늘의 축, 천축(天軸)을 기준으

로 지축(地軸)이 기울었다는 말로 환원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천축(天軸)과 지축(地軸)이 어긋나 있다는 말입니다.

지축(地軸)은 땅의 축, 인간과 마귀의 중심축을 의미합니다. 천축(天軸)은 하늘의 축, 하나님의 세계의 중심축입니다. 따라서 '천축(天軸)과 지축(地軸)이 어긋났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인간이 마귀의 종인 시대이므로 당연합니다. 그 시대는 인간과 마귀신의 중심축이 일치한 시대, 선천(先天)이요 마귀시대입니다.

반대로 지축(地軸)이 바로 서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축과 천축(天軸)이 일치하게 됩니다. 이는 하늘과 땅, 인간과 하나님의 중심이 일치한다는 것이며 이는 그대로 천지합일(天地合一), 인신합일(人神合一)입니다.

지축이 바로 서는 것은 인간과 마귀 입장에서선 천재지변이고 종말일 뿐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선 마귀세상을 끝내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여는 것이니, 지축정립은 이긴자께서 말씀하신 말세(末世)와 동의어입니다.

다 빈치의 시대에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긴자가 출현해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었을 때 이르러셔야 비로소 지축(地軸)과 천축(天軸)은 일치하

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 빈치의 그림과 탄허의 지축정립(地軸正立)간의 놀라운 유비(類比)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축이 기울어져 하늘과 땅이 어긋나 있는 선천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다 빈치의 그림에서는 땅 축, 사각형의 중심과 하늘 축, 원의 중심이 배꼽과 성기로 나뉘어져 어긋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천축과 지축이 일치하는 후천 개벽시대에는 원의 중심과 사각형의 중심이 일치하게 됩니다.

다 빈치의 비트루비우스 인간은 살짝 어긋난 사각형과 원의 배치를 통해, 역설적으로 다가올 지축정립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트루비우스 인간'은 선천시대의 하늘과 땅의 균열을 반영하면서도, 그 안에 네 생물의 왕을 담아내고 있는 놀라운 영적 통찰의 집적물이며, 수백 년의 시간을 앞서 등장한 네 생물의 왕, 이긴자의 초상입니다.

이것이 비트루비우스 인간이 그토록 못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고 그 중심을 흔들어난 이유입니다.*